● 타운뉴스 칼럼

코로나 시대를 사는 지혜

안창해
타운뉴스 발행인

지난 6월 말 타운뉴스 사옥 이전 후 시청에 몇 가지 볼 일이 있었다. 비즈니스 퍼밋을 받아야 했고 건물에 간판을 달아야 했다. 평소 같으면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퍼밋을 주고, 간판도 시 규정에 적합한가를 확인한 후 허가해주는 아주 간단한 일이다.

그러나 '코로나 19' 로 시청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시청 입구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전화를 이용하라는 안내문이 있었다. 전화를 걸었다. 시청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절차를 밟으라고 했다.

시청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서류 양식을 다운 받아 기입한 후에 소방안전국에 가서 서류에 사인을 받은 후 제출했다. 누군가에게 건네주는 것이 아니고 시청 정문 앞에 준비해둔 통에 넣는 것이다. 한 달 이상 지난 뒤에 비즈니스 퍼밋을 받았고, 간판을 달아도 좋다는 연락이 왔다.

시공무원들이 정상 근무를 하지 않다보니 평소보다 시간이 어느 정도 더 걸리는 점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즈니스 퍼밋을 받는데 한 달 이상 소요되고 간판 설치 허가를 받는데 한 달이나 걸려야 하는 지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와중에 회사 주차장 담벼락과 회사 밴에 낙서가 발견되었다. 담벼락의 낙서는 갱들의 지역 표시로 간주되는 문자와 숫자가 적혀 있었고, 밴에는 F로 시작되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일단 자동차의 낙서는 신나로 지웠고, 담벼락 낙서는 페인트로 덧칠을 해서 원래의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

CCTV에서 그 부분을 녹화하고 범행 장면은 사진으로 만들어서 가까운 라미라다 시 경찰서로 향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듣고 있던 경찰관은 산타페스프링스 시의 관할서는 위티어 경찰서라면서 주소를 알려주었다.

위티어 경찰서는 한참 더 가야 했다. 경찰서 출입문은 닫혀 있었고, 안내판에는 용무가 있는 사람은 전화를 먼저 하라고 적혀 있었다. 전화를 걸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담당자를 바꿔주겠다고 했다. 담당자는 주소를 달라고 하면서 그 장소로 사람이 갈 거라고 했다. 나는 지금 경찰서 앞에 와 있으니 담당자를 만나고 가겠다고 했다. 그럼 기다리라고 했다.

경찰서에 온지 30분, 통화를 한 후로는 20분이 지났다. 다시 전화를 걸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냐고? 더 기다리라고 했다. 그리고 또 15분이 지났다. 날은 뜨겁고 온몸이 땀에 젖었다. 점심도 못 먹고 땡볕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다음날 경찰서에 다시 전화했다. 그러자 곧 경찰관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이 찾아왔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사진과 녹화한 CD를 건네주었다. 그러자 경찰관이 물었다. 범인들이 감옥에 가기를 원하느냐고. 아니라고 했다. 이까짓 낙서로 아이들이 감옥에 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자 범인을 잡는 대로 신원을 알려주겠노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 지역에 23년 근무를 했으며 이 아래 지역에 두 명의 경찰관이 순찰을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을 자주 돌아보라고 하겠다고 했다.

잠시나마 경찰이 잘못되었다며 분개했던 내가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냥 사건을 전화로 접수하고 기다리면 경찰이 찾아올 텐데 경찰서까지 갔으니까 담당자를 만나고 오겠다고 생각한 그 자체가 잘못이었다. 전화를 받고 불과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경찰관이 나타나지 않았던가.

시청에서 비즈니스 퍼밋을 주고 간판을 허가하는데 한 달 이상 소요되는데도 까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조급하게 서두르고 안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유 없이 늦게 줄 리가 만무하지 않은가.

'급할수록 돌아가라' 는 한국 속담이 있다. 영어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다. '천천히 서둘러라' (Make haste slowly).

서두르다 화를 당하는 경우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서둘러 일을 마치려다 엉터리로 해서 오히려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경우도 있고, 조급한 마음에 과속을 하다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코로나 19' 라는 비상사태가 6개월째 진행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런 탓에 코로나19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고통의 시간은 더욱 길어지고 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 꿰어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서둘러 질러가기보다 돌아가는 지혜가 절실한 때이다.

chahn@townnewsusa.com

타운뉴스

제 1330호 목차

TownNews QR Code

타운뉴스 칼럼 11
커뮤니티 소식 13,15
IT · 과학 16,33
법률 19
여행 21
전문인 칼럼 22,34,39
나는야 1.5세 아줌마 23
지금 서울에서는 25
숨은그림 찾기,답/낱말 퀴즈,답 26,45
함께 생각 29
업소탐방 31
부동산/경제 35
깔깔 38
한인업소 안내지도 40,42,52,54,56
요리 41
그림여행 43
연예 45,47
중고차, 안내광고 48,49
Domestic/ 주간운세 50
여성 53,55

가주장의사
매장·화장·묘지주선·이장·장례보험등
● 넓은 주차장 ● 교통 편리 (LA, OC-20분)
● 저렴한 비용으로 봉사하여 드립니다.
24시간 TEL
대표: 정 영 목 목사
9830 Lakewood Blvd., Downey, CA 90240
(562)622-9393

타운뉴스® 배포지역
· 로스엔젤레스, 세리토스, 아테시아
· 하시엔다, 로랜하이츠, 다이아몬드 바 등 LA 동부
· 오렌지카운티 전지역
· 가디나, 토랜스
광고문의 562.404.0027
info@townnewsusa.com
www.townnewsusa.com

Keon-Jung Kim Dental Corp.
IMPLANT, COSMETIC, ORTHODONTIC
& LASER DENTISTRY ORAL SURGERY
터스틴 김건중 종합치과 이전 개원
평생 치아 건강을 맡길수 있는
35년 임상경험의 치아이식 전문의와의 만남...
일반 · 미용치과 전문
Jeon Hara, DDS, MS, Ph.D
Jeong Eun Kim, DDS
Soyoun Jenny Min, DDS
Maria Capiral, DDS
교정치과 전문
Jin Kim, DDS, MS
Columbia 명문대 졸업
미국 board certified orthodontist
(미국 교정치과 보드 전문의)
Medicare B plan
(PPO) provider
Health care(PPO) 취급하여
→ 뼈이식과 Implant 할인 혜택 가능
▪ 3차원 CT촬영으로 정확한 진단과 수술
▪ Surgical Microscope을 이용한 섬세한 외과수술 및 동영상 촬영
▪ 레이저를 통한 무마취 · 무출혈 · 무통 잇몸치료
New Address
2492 Walnut Ave. #200, Tustin, CA 92780
949.679.6000 / (San Diego) 760.479.9876
www.timkimdental.com
55 Cross Road Church Tustin Ranch Rd. Yedang Korean Restaurant Franklin Ave. Walnut Ave 405 Jamboree Rd 5
NEW LOCATION TO BETTER SERVE YOUR DENTAL NEED
KEON-JUNG 'TIMOTHY' KIM
구강외과/치아이식 수술전문의 ORAL SURGERY
D.D.S., M.S.D.,PH.D.
– 대한 구강악안면 외과 board certified specialist
– 인천 중앙 길병원 치과 구강외과 주임과장 역임
– 대한 구강악안면 성형재건외과학회 지도의 역임
– LSU 치대 구강악안면외과 Postgraduate Fellow 역임
– LSU 치대 구강악안면외과 조교수 역임
– New Orleans Charity Hospital 구강외과, 치아이식과 임상과정
– 미 치아이식학회 (AAID, AO)회원
– ADA, CDA, OCDS, KADA 회원